

問

を織る

사이의

직조

【特集】

アーティスト・インタビュー

<특집> 아티스트 인터뷰

정해인
チョン・ヘイン
Hae-in Jeong

최은영
チェ・ウニョン
Eunyoung Choi

류지영
リュ・ジヨン
Reu Jiyong

아리안 멕시예-보
アリアネ・メルシエ-ボー
Ariane Mercier-Beau

2026 大阪韓国文化院 ミリネギャラリー 企画公募 選定展

2026年2月27日

3月28日

企画

예술감각혁신공장 **As If**
As If : Artistic Sense Innovation Factory

主催・主管

 駐大阪韓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Osaka

<사이의 직조>는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알리고 한일 작가 및 전시 기획자 간의 문화예술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2026 오사카한국문화원 미래내갤러리 전시기획 공모>의 선정 그룹인 예술감각혁신공장의 전시입니다.

<間を織る>は、韓国現代美術の多様性を伝え、韓日両国の作家およびキュレーター間の文化芸術交流を拡大するために実施された、「2026 大阪韓国文化院 ミリネギャラリー企画公募」の選定グループである「芸術感覚革新工場」による展示です。





예술감각혁신공장(As If : Artistic Sense Innovation Factory)는 정해인, 최은영을 중심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객원 멤버와 협업하는 아트크루입니다. 2023년 파리에서의 첫 전시를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예술을 실험적 창작의 장으로 확장하고 예술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는 것을 주요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획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예술과 심리학, 철학, 물리학, 천문학 등 학제 간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감각적 경험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혁신공장'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감각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생산하는 공간이자 개념적 장소를 의미합니다.

- 예술 구현 프로젝트 "그리고 마치_인 것처럼"

대표활동

2024-2025 | 〈미안해요 데이브 유감이지만 난 그럴 수 없어요〉, 부산현대미술관,
대한민국 부산 (부산모카플랫폼 '하지만 데이브, 이 길이 정답이에요' 협력 프로젝트 공모 선정)
2023 | 〈GWANEUM: Voyeurisme〉, 14 rue Jean-Macé, 프랑스 파리

芸術感覚革新工場 (As If : Artistic Sense Innovation Factory) **は、チョン・ヘインとチェ・ウニョンを中心に、プロジェクトごとに客員メンバーと協働するアートクルーです。2023年のパリでの初展示を契機に結成されました。芸術を実験的創作の場へと拡張し、芸術と学問の境界を探求することを主要なビジョンとして掲げています。

企画展を中心に多様な主題を扱い、芸術と心理学、哲学、物理学、天文学などの学際的な結合を通じて、新たな感覚的体験の可能性を模索します。「革新工場」とは、科学的かつ論理的な感覚体験に基づき、新たな芸術的可能性を生産する空間であり、概念的な場所を意味します。

- 芸術具現プロジェクト「そして、あたかも~であるかのよう」

主な活動

2024-2025 | 「申し訳ありません、デイブ。残念ながら、それはできません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釜山現代美術館 (韓国、釜山)
釜山モカプラットフォーム「しかしデイブ、この道が正解です」
協力プロジェクト公募選定
2023 | 「GWANEUM: Voyeurisme」 14 rue Jean-Macé (フランス、パリ)



아티스트·인터뷰

정: 정해인 최: 최은영 류: 류지영 아리: 아리안 멕시코-보

쵸ン: 쵸ン·헤인 첼: 첼·우니ョン 리: 리·쥬يون 아리: 아리아네·멜시エ·ポー



정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이자, 아티스트 인터뷰 진행을 맡은 정해인입니다. 우선 저희 아트크루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저희 예술감각혁신공장은 저와 최은영 작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다른 작가들이 함께 모여 작업하는 유연한 형태의 아트 크루입니다. 2023년 파리에서의 첫 전시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예술을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질문을 던지고 감각을 실험해보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을 중심으로 공간과 감각, 인식의 방식을 조금씩 흔들어보는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역시 그런 질문과 태도 위에서 시작된 하나의 시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이번 전시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각보'에서 출발했습니다. 조각보는 서로 다른 천들이 모여 하나의 표면을 이루지만 완전히 하나로 봉합되지는 않습니다. 각 조각은 고유한 시간과 기억, 물성을 유지한 채 불균형하게 맞닿고, 그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인터뷰도 작품을 하나의 해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각 작업이 어떤 '조각'을 선택했고, 그것을 어떻게 잊거나 혹은 남겨두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각 작가분들께서 본인 소개를 들어보고, 작품 설명과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쵸ン こんにちは。今回の展示に参加した作家であり、本日のアーティストインタビューの進行を務める쵸ン·헤인입니다。まずは、私たちのグループの紹介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

今回の展示を企画した「芸術感覚革新工場」は、私と첼·우니ョン作家を中心に、プロジェクトに応じて他の作家が集まり活動する流動的な形態のアートクルーです。2023年のパリでの初展示をきっかけに結成されました。私たちは芸術を完成された結果ではなく、問いを投げかけ感覚を実験するプロセスとして捉えています。そのため、企画展を中心に、空間・感覚・認識のあり方を少しずつ揺さぶるような展示を続けてきました。今回の展示も、そうした問いと姿勢から始まった一つの試みです。

ここで、今回の展示についても簡単に紹介します。今回の展示は「쵸갯포 (韓国のパッチワーク)」から出発しました。쵸갯포は異なる布が集まって一つの表面を成しますが、完全に一つに縫合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各ピースは固有の時間、記憶、物性を保ったまま不均衡に接し、その間で新しい関係が生まれます。

本日のインタビューも、作品を一つの解釈にまとめるのではなく、各作業がどのような「ピース」を選択し、それをどう繋ぎ、あるいは残したのかを中心に話を進めていければと思います。

작가 소개 및 작품 해설

정 저희 크루의 메인멤버인 최은영 작가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수 있을까요?

최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과 감정, 그리고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탐구하고 있는 작가 최은영입니다. 저는 특히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남아있는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석이 바뀌고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서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작업 안에서 계속 질문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고 있는 작품들도 그 질문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조각내고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

쵸ン まずはクルーのメインメンバーである첼·우니ョン作家からお願いできますか?

첼 こんにちは。記憶と感情、そして人間が世界を認識する方式を追求している첼·우니ョンです。私は特に、個人的な経験の中に残る感情が、時間の経過とともに解釈がどう変わり、別の視点で見られるようになるのか、それがどのような叙事(ナラティブ)へと繋がるのかを問い続けています。展示作品もその問いから始まりました。切り刻み、繋ぎ合わせる過程で生じる「完璧に噛み

하는,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는 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 아리안 작가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리 저는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랑스-이란계 작가 아리안 멕시에-보입니다. 제 작업은 섬유, 특히 실크와 자수를 매개로 친밀성, 기억, 그리고 언어를 탐구합니다. 일상의 문장과 이미지의 단편들을 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경험이 타인의 경험과 공명할 수 있는 감각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정 이어서 류지영 작가님도 부탁드립니다.

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시각예술 작업을 하는 류지영입니다. 저는 '이미지'를 주 매개체로 삼아 시선의 잠재력과 한계라는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진 작업의 경우, 바라보는 행위가 곧 '선택'의 전조 행위임을 전제로 사물과 풍경의 오묘한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랜시간 제 활동 배경이었던 두 장소에 관한 작업들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6년, (서울의 도시)을지로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 두 장소에서의 세월이 제게 남긴 사유의 결정체를 '콜라주'라는 개념과 엮어 전해보고자 합니다.

정 다음으로는 작품설명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류지영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류지영 작가님의 작업은 서로 다른 출처의 요소들을 '선택하고 잘라내는' 행위를 통해 하나의 화면에 병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진, 도시의 장면, 사물들은 원래의 맥락을 벗어나 콜라주의 재료로 작동하며, 그 선택의 과정 자체가 화면의 구조가 됩니다.

작가님께서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업들을 중심으로 관객이 작품을 볼 때 이것만은 알고 보면 좋겠다 싶었던 지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合わない隙間」についての物語を込めています。

チョン アリアネ作家も紹介をお願いします。

アリ 私は日本を拠点に活動しているフランス・イラン系の作家、アリアネ・メルシエ・ボーです。私の仕事は繊維、特にシルクと刺繍を媒介に、親密性、記憶、そして言語を追求します。日常の文章やイメージの断片を使い、個人的な経験が他者の経験と共鳴できるような感覚的な空間を作り出しています。

チョン 続いてリュ・ジヨン作家もお願いします。

リュ こんにちは。ソウルで視覚芸術の仕事をしているリュ・ジヨンです。私は「イメージ」を主な媒体とし、眼差しの潜在力と限界という両面性について語っています。特に写真作業の場合、見つめる行為がすなわち「選択」の前兆行為であることを前提に、事象や風景の妙なるシーンをカメラに収めます。今回は、長年私の活動拠点だった2つの場所（フランスで6年、ソウル・乙支路で7年）に関する作業を「コラージュ」という概念と絡めて披露しています。

チョン 次は、作品解説について伺いたいと思います。

まずはリュ・ジヨン作家にお話を伺います。

リュ作家の作業は、異なる出処の要素を「選択し切り出す」という行為を通じ、一つの画面に並置する方式で構成されています。写真、都市のシーン、事物は元の文脈を離れてコラージュの素材として機能し、その選択のプロセス自体が画面の構造となります。

作家様が今回の展示に出品された作業を中心に、観客が作品を見る際に「これだけは知っておいてほしい」というポイント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류 저는 '바라봄'이란 아주 주체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의 방향성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이 일어나기 전의 기본적인 전조 현상이죠. 이는 곧 바라봄을 행하는 사람의 경험과 서사와도 깊게 관련되고 쉽게 말하면 삶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선의 형태가 아주 다양할 수 있음을 프랑스에서의 생활로 먼저 깨닫게 되었고, 이후의 활동 배경이었던 을

リュ 私は「見つめること」とは、非常に主体的な行為だと考えています。それは無意識の方向性でもあり、先ほど申し上げた「選択」が起こる前の基本的な前兆現象なのです。これはすなわち、見つめる側の経験や叙事（ナラティブ）とも深く関わっており、端的に言えば人生を反映していると言えます。私はこのような視線の形が多種多様であり得ることを、まずフランスでの生活で悟りました。その

지로에서 한 작은 생태계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핵심은, 도시는 수많은 컷(cut)으로 이루어진 장면(scene)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만의 컷=선택=삶으로 장소를 채워나갑니다. 선택이란 '입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는 곧 '위치'를 의미합니다. 저는 항상 관찰자의 입장이었고 저의 선택은 그 수많은 입장들이 한 곳에서 얽히고 설키는 순간순간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오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 셔터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아이스크림 통에서 한 스푼만을 떠내듯이 말이죠. 동시에 도시의 주류를 이루는 구성원들 사이에 저라는 반 이방인 또한 그 생태계의 일원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진짜 콜라주가 아닌 사진 작업의 개념으로 가져가게 된 이유가 있다면, 모든 컷들이 가지는 진정성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콜라주는 각기 다른 매체들이 모여 한 폭을 이루는 기법입니다. 제가 느낀 도시의 분위기는 그와 너무나도 밀접했으며 그 사실을 가장 순수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정 다음은 아리안 작가님입니다.

아리안 작가님의 작업에서 바느질은 단순한 제작 기법이 아니라 흠어진 기억과 감정, 언어를 다시 엮는 행위로 등장합니다. 실크 천 위에 자수로 새겨진 문장들은 패치워크로 이어지며, 고백과 내면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인 하나의 감정적 표면을 형성합니다.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작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지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작품소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後、活動の背景となった(ソウルの)乙支路(ウルチロ)にて、一つの小さな生態系が非常に複雑に回っている様子を目撃することになります。これら二つの物語の核心は、「都市とは無数のカット(cut)で構成されたシーン(scene)のような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都市のすべての構成員は、自分だけのカット=選択=人生によって場所を埋めていきます。選択とは「立場」へと繋がり、それはすなわち「位置」を意味します。私は常に観察者の立場であり、私の選択とは、それら無数の立場が一箇所で絡み合う瞬間瞬間の中で、私が考える最も「奥妙に交差する地点」を探してシャッターを切ることでした。まるで巨大なアイスクリームの容器から、たった一スcoopだけを掬い取るかのようにです。同時に、都市の主流を成す構成員たちの間で、私という「半・異邦人」もまたその生態系の一員であったことを語るものでもあります。これを本物のコラージュではなく写真作業の概念として取り入れた理由があるとするならば、すべてのカットが持つ真実味(真正性)を強調したかったからです。コラージュはそれぞれ異なる媒体が集まって一幅の絵を成す技法です。私が感じた都市の雰囲気はそれとあまりにも密接しており、その事実を最も純粋な方法で証明したかったのです。

チョン 次は、アリアネ作家です。アリアネ作家の作業において、縫うことは単なる制作技法ではなく、散らばった記憶や感情、言語を再び編み直す行為として登場します。シルクの布の上に刺繍で刻まれた文章はパッチワークで繋がれ、告白と内面の内緒話が幾重にも積み重なった、一つの感情的な表面を形成しています。作家から見て、今回の作業を理解する上で最も重要な出発点となるポイントを挙げるとすれば、どの部分でしょうか? 作品紹介と共にお聞かせください。



아리 제 작업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섬유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언어와 기억이 담기고 작동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바느질이라는 행위는 실크 위에 수 놓인 문장들과 일상의 이미지들을 통해 감정, 생각, 기억의 단편들을 물리적으로 모으고 연결하는 과정이 됩니다. 즉, 흩어져 있는 내면의 경험들이 섬유라는 매개 위에서 하나의 감각적인 구조로 다시 구성됩니다.

제 작업은 특정한 서사를 전달하거나 하나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각자의 경험과 기억을 그 위에 겹쳐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은 개인적인 기억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경험과 맞닿으며 어떤 정서적 연결과 공명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공간으로 작동합니다.

정 이어서 최은영 작가님입니다.

최은영 작가님은 파편과 균열의 형상을 통해 기억과 감정의 층위를 다뤄왔습니다. 캔버스에 그린 옷칠화나 깨진 유리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틈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자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는 자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을 중심으로, 관객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작업 앞에 서길 바라셨는지 작품 설명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리私の仕事を理解する出発点は、繊維を単なる物質ではなく、言語や記憶が込められ、作動する一つの「空間」として捉えることにあります。縫うという行為は、シルクの上に刺繍された文章や日常のイメージを通じて、感情、思考、記憶の断片を物理的に集め、繋ぎ合わせるプロセスとなります。つまり、散らばっている内面の経験が、繊維という媒介の上で一つの感覚的な構造として再構成されるのです。

私の仕事は、特定の叙事（ナラティブ）を伝えたり一つの意味を規定したりすることにとどまらず、観客がそれぞれの経験や記憶をその上に重ね合わせる「余地」を残すことに、より大きな目的があります。それを通じて、作品は個人的な記憶から出発しながらも、同時に他者の経験と触れ合い、ある種の情緒的な繋がりや共鳴の可能性を生み出す感覚的な空間として機能します。

チョン 続いて、チェ・ウニョン作家です。

チェ作家は、破片や亀裂の形を通じて、記憶と感情の層を扱ってこられました。キャンバスに描かれた漆塗りや、割れたガラスを再び繋ぎ合わせる過程で生じる「隙間」は、完全に回復していない状態であると同時に、新しい繋がりが生まれる場所として残されています。

今回の展示に出品された作品を中心に、観客がどのような感覚を持って作品の前に立つことを望まれているのか、作品の解説と共に伺えますでしょうか？



최 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업들은 제가 투병생활을 하며 힘든 시간을 겪었던 시기의 기억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때의 장면들은 저에게 오래도록 고통스럽고 슬픈 이미지로 남아있었는데, 저는 그 기억을 유지하기보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그리고 조각낸 뒤 다른 이미지들과 섞어서 다시 재구성을 했고, 우리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스스로 깨뜨리고 균열을 드러낸 뒤, 이어 붙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균열과 틈이 킨츠키를 통해 결점이 아닌 새로운 의미와 아름다움이 드러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작품 앞에 섰을 때, 하나의 완성된 이미지나 오브제 보다, 서로 다른 시간과 감정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를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상처로, 또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연결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 자체가 이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마지막으로 저도, 제 작업을 짧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 작업은 겹침, 관측, 그리고 기록의 오류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인 조각보를 저는 하나의 완결된 형식이라기보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비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한 번에 주어지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관측된 조각들이 중첩되고 어긋나며 임시적인 이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의 조건을 물리적 장치와 이미지, 그리고 공간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제 작업에서 어떤 대상은 항상 존재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만 드러나거나, 서로 다른 장면과 시간의 단편들이 하나의 화면이나 공간 안에서 동시에 겹쳐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측의 조건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제 작업에서 기억과 시간은 선형적으로 축적되는 기록보다는 서로 다른 순간의 흔적들이 중첩되고 재구성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태로 제시됩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세계와 이미지는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첸 はい、今回の展示に出品した作業は、私が闘病生活の中で辛い時間を過ごした時期の記憶から出発しています。当時のシーンは、私の中に長く苦しく悲しいイメージとして残っていましたが、私はその記憶をそのまま保持するのではなく、別の視点で見つめ直したいと考えました。

そのため、当時の記憶を象徴するイメージを描いてバラバラに刻んだ後、他のイメージと混ぜ合わせて再構成しました。また、ガラスが最も完璧だと思う瞬間に自らそれを割り、亀裂を露わにした後、再び繋ぎ合わせるというプロセスを経ています。私はその過程で生じる亀裂や隙間が、金継ぎを通じて欠点ではなく新しい意味や美しさとして立ち現れるのだと感じました。

ですから、観客が作品の前に立ったとき、一つの完成されたイメージやオブジェとして見るよりも、互いに異なる時間や感情が同時に共存している状態を感じていただきたいです。ある方には傷跡として、またある方には新しい繋がりとして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違いそのものがこの作業の重要な部分だと考えています。

チョン 最後に、私も自分の作業を簡単に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私の作業は、「重なり」「観測」、そして「記録の誤り」という問題意識から出発しています。今回の展示の主題である「チョガッポ」を、私は一つの完結した形式というよりは、世界を認識する方式についての比喩として受け止めました。世界は常に一度に与えられるものではなく、部分的に観測されたピースが重なり合い、ずれながら、一時的な理解を作り出していくのだと考えています。

私はこのような認識の条件を、物理的な装置とイメージ、そして空間を通じて表現しようと試みました。私の作業において、ある対象は常に存在していますが、特定の条件下でしか現れなかったり、互いに異なるシーンや時間の断片が、一つの画面や空間の中で同時に重なって現れたりします。これを通じて、私たちが見えていると思っている世界が、一つの固定された実体ではなく、観測の条件や位置によって異なって構成されるプロセスであることを示そうとしました。

また、私の作業において記憶と時間は、線形的に蓄積される記録というよりは、異なる瞬間の痕跡が重なり合い再構成されながら、持続的に変化する状態として提示されます。私はこのような構造を通じて、世界とイメージは完結した形態ではなく、関係性の中で絶えず形成されるプロセスであるという点を伝えたいと考えました。



つなぎの質問 ① 選択 → つなぐ 연결 질문 ① 선택 → 잇기

정 지영 작가님 작업에서는 ‘선택’이라는 행위가 굉장히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미학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세계를 대하는 태도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작가님에게 이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류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균형, 색깔, 그리고 여지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이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을 업으로 삼은 입장에서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고, 특징의 최대치를 펼칠 수 있으며, 타인과 조화로울 수 있도록 자신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 종류가 무엇이 되었던 말이지요.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자면 ‘Life finds a way (주라기공원 1)’처럼 각자가 타고난대로 살아가는 와중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유연하게 지속될 수 있는 세계를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제 가치관이 선택에 반영된 것이겠죠. 그렇다보니 명과 암, 드러나는 것과 소외되는 것,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 등 대립관계에 놓인 것들을 한데 놓고 바라보다가 조금 더 제 기준 균형을 맞추는 장면에서 시선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정 말씀을 듣다 보니, 선택이 곧 화면의 질서이자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점에서 아리안 작가님의 작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지영 작가님의 작업이 ‘선택하고 잘라내는’ 방식이라면, 아리안 작가님은 선택된 조각들을 다시 ‘잇는’ 행위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작가님께 바느질이라는 행위는 어떤 태도를 의미하나요?

아리 저에게 바느질은 결합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변형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요소들로부터 새로운 대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며, 단편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와 의미를 갖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바느질과의 관계는 제 개인적인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바느질을 하고 옷을 만들어 오셨고, 저는 섬유가 하나의 창작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제 작업에서 저는 이러한 바느질의 행위를 이어가면서 그것을 이미지, 단어, 그리고 감정의 단편들을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チョン 류 작가의 작업では「選択」という行為が非常に鮮明に感じられます。

これは単なる美学としての判断よりも世界に対する態度のようにも見えますが、選択の基準はどこにあるのでしょうか？

リュ 大きく3つあります。「バランス（均衡）」、「色」、そして「余白（余地）」です。重要な順に申し上げましたが、これらは生態系の多様性を維持するために必要な要素だと考えています。私は芸術をなりわいとする立場から、その種類が何であれ、「各自の個性が尊重され、特徴を最大限に発揮でき、他者と調和できるよう自らを変化させる可能性を持つ」社会を必要としています。好きな映画の台詞を引用するなら、「Life finds a way (ジュラシック・パーク1)」のように、それぞれが生まれ持ったままに生きる中で、自然な流れとして柔軟に持続できる世界を理想としています。そのような私の価値観が「選択」に反映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ですから、明と暗、表に現れるものと疎外されるもの、理性的なものや感情的なものなど、対立関係にあるものを一箇所に置いて見つめながら、私なりの基準でよりバランスの取れるシーンに視線を向けているのだと思います。

チョン お話を伺っていると、「選択」こそが画面の秩序であり構造なのだと感じられます。この点で、アリアン作家の作業が自然と連想されますね。リュ作家の作業が「選択して切り出す」方式だとするならば、アリアン作家は選択されたピースを再び「繋ぐ」行為に近いように見えます。作家様にとって、縫うという行為はどのような態度を意味するのでしょうか？

アリ 私にとって縫うことは、結合の行為であると同時に変容の行為でもあります。それは、既に存在している要素から新しい対象を作り出す方式であり、断片を互いに連結させることで、それらが以前とは異なる存在と意味を持つようにするプロセスです。このような縫うこととの関係は、私の個人的な歴史とも繋がっています。私の母はいつも縫い物をし、服を作っていました。私は繊維が一つの創作空間になり得るという考えの中で育ちました。私の作業において、私はこのような縫う行為を受け継ぎながら、それをイメージ、言葉、そして感情の断片を互いに連結し、結合させる方式として用いています。

つなぎの質問 ② つなぐ → 隙間 연결 질문 ② 잇기 → 틈

정 아리안 작가님의 작업이 조각들을 이어 하나의 표면을 만든다면, 은영 작가님 작업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 ‘틈’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チョン アリアン作家の作業がピースを繋いで一つの表面を作るのだとすれば、チュ作家の作業ではむしろ、完全には繋がらない「隙間（틈）」が非常に重要に感じられました。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균열은 회복을 향한 과정인지 아니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作家が考える「亀裂」とは、回復に向かうプロセスな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残り続けるべき状態なのでしょうか。

최 저는 균열을 단순히 회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리나 이미지들은 다시 이어 붙여도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그 상태를 결점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균열은 새로운 형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킨츠키 작업에서 금으로 마무리 된 부분들은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면서 다른 의미를 만들어 냅니다.

저에게 그러한 완전히 이어지지 않는 틈은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경험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균열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으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치에 私は亀裂を、単に回復へと向かうプロセスだとは考えていません。ガラスやイメージは、再び繋ぎ合わせても以前の状態に完全に戻ることはありません。しかし、私はその状態を欠点だとも思いません。むしろ亀裂は、新しい形態が始まる地点だと考えています。金継ぎにおいて金で仕上げられた部分は、傷を隠すのではなく、あえて露わにすることで別の意味を生み出します。私にとって、そのような完全には繋がらない「隙間」は、過去と現在、そして互いに異なる経験が出会う場所なのです。

ですから亀裂とは、消え去るべきものではなく、残り続けながら新しい関係を作り上げていく状態に近いと考えています。

つなぎの質問 ③ 隙間 → 観測と重なり 연결 질문 ③ 틈 → 관측과 겹침

정 방금 말씀해주신 ‘남겨진 틈’이라는 개념은 제 작업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 작업에서는 모든 이미지와 정보가 항상 드러나 있지 않고 특정한 조건, 예를 들어 관측이나 개입이 발생할 때만 일부가 드러납니다. 이 역시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관계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의 조각보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치ョン 今おっしゃった「残された隙間」という概念は、私の作業における「見えない状態」ともつながるように感じます。

私の作業では、すべてのイメージや情報が常に現れているわけではなく、特定の条件、例えば「観測」や「介入」が生じたときにのみ、その一部が姿を現します。これもまた、完全に縫合されていない状態でこそ関係が生まれるという点で、今回の展示の「チョガッ포」の概念と通じていると感じました。

結び 마무리

정 오늘 이야기가 각 작품을 하나의 의미로 정리하기보다는 전시를 다시 한 번 다른 속도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각 작업에서 남겨진 조각과 틈은 전시장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ョン 今日のお話が、各作品を一つの意味で定義するのではなく、展示をもう一度異なる速度で見つめるきっかけになれば幸いです。インタビューはここで締めくくりますが、各作業の中に残された「ピース (조각)」と「隙間 (틈)」が、展示会場の中でそれぞれの 방식으로繋がりを続け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작성 : 정해인, 편집 : 노승현, 촬영 : 김봉섭 / 주오사카한국문화원, 예술감각혁신공장
作成 : チョン・ヘイン、編集 : ノ・スンヒョン、撮影 : Bongseob Kim / 駐大阪韓国文化院、芸術感覚革新工場

2026. 3.

大阪韓国文化院 (院長 キム・ヘス) 大阪市北区東天満1-1-15
오사카한국문화원 (원장 김혜수) 오사카시 기타쿠 히가시텐마 1-1-15

이 출판물의 텍스트 및 사진은 출처 표기 후 사용 가능
この出版物のテキスト及び写真等は出典を表記する場合のみ使用可能



間を織る
사이의 직조

